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육아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하며

이영소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선진국들은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큰 가치로 여기고 실제로 영유아에 대한 국가 예산을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1년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추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적 자원으로 잘 길러내기 위하여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함께 사용할 통 교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제정·공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누리과정의 마련과 시행 준비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아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제 우리나라 영유아와 가족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육아정책연구기관으로 다시 도약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출산과 육아관련 정책연구 수요가 나날이 증대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겠습니다. 매해 증가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에 비해 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모, 현장 교원 등 정책수혜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 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i-POL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i-POL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육아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 사업은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취학전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공통과정의 현장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5세 누리과정 시행의 성과측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특별히 공생발전과 출발점 평등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육아정책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영유아의 양육과정에 사회가 조기 개입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평등성의 효과를 모두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실에서 우리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와 가족의 진정한 행복과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시대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한 나라에서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커졌음을 바로 인식하고, 2012년에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육아정책 연구기관으로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